

전 군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장수군, 경제위기 극복 위해 1인당 10만원 사랑상품권으로 지원

장수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장영수 군수는 9일 김종문 군의장 및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나이·소득·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4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 군민으로, 2만 2300여명이다.

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2억3000만원에 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 5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고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절차는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원 확인만 하면 세대원 모두를 대리해 한 명이 전액 신청할 수 있다.



장영수 군수는 9일 김종문 군의장 및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현 출장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재원의 선순환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진안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지지 "진안발전 위해 전춘성 밀어 달라"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전춘성 더불어민주당 진안군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진안을 방문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9일 진안 장남을 맞이하여 전춘성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후보에 대한 지지와 함께 종사원들에 대해 고생이 많았으며 격려했다.

이날 김 전 의장은 안한수 진안군노인회 회장 일행과 전춘성 후보 승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전춘성 후보와 함께 진안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진안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진안발전의 책임자인 전춘성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전춘성 후보는 32년을 진안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지금 진안은 전춘성 후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원기 전 의장은 "진안발전을 위해서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인 전춘성을 밀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춘성 후보는 진안군에서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진안읍장, 행정복지국장 등을 지낸 행정전문가이며, 현재는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진안지구연합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코로나19 비상대책 기관장회의 개최

무주군은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 기관장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유승열 무주군의회의장과 박종삼 무주경찰서장, 장성열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 등 19개 기관장들이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책을 공유하고 기관별 대책과 협조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농번기 인력수급대책과 각종 요금 및 지급수수료 감면 방안, 단계적 온라인 개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기관별 협조 사항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민 모두에 재난기본소득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

무주군, 1인당 10만원 지급

"무주군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습니다"

9일 무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황인홍 무주군수의 야심찬 결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2만 4천여 무주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소요되는 24억 2천여만 원의 재원은 △공무원과 의회 의원 여부 30%를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 10%를 절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를 우리 군민들도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가정경제의 씨앗이자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황 군수는 또한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체라는 생각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빠르게 소비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무주가 그동안 확진환자 없이 코로나19 청정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방역수칙 준수 등 성숙한 군민 의식을 발휘해준 군민들 덕분"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군민의 건강과 생활안정,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승열 무주군의회의장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무주군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조례를 재정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며 "무주군의회의에서도 의원들의 국외여비 40% 삭감, 의원 정책개발비 40%를 삭감해 군민과 고통분담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나이와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에게나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급일과 사용방법 등에



황인홍 무주군수가 9일 기자회견에서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공지할 계획이다.

5월 중에는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50~100만 원)확대 및 페이백 이벤트(카드형 상품권 전용 사용액의 5% 인센티브 지급)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원예분야 지원사업 적극 추진

장수군은 관내 원예농가의 고품질 농산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20년 원예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올해 일반원예시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유망작목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단동 및 연동하우스, 소규모육묘장, 발아실, 증형관정, 농산물건조기 등 일반원예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원예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스마트팜 기반구축, 축고인상, 환경관리 등 시설원에 현대화사업을 비롯하여 ICT융복합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다결보온커튼,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원예분야에 총 192ha, 18억 규모로 15개의 보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의 원예작물 고품질 명품화를 위한 작물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진안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해 올해 83농가에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지 농경지 실정에 따라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기

울타리와 그물망 설치 등을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추가 기피제 보급과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집중 운영하여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사물인터넷 무선통신 서비스망 인프라 기반 구축

진안군은 4차 산업기반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주민생활 편의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관내 80여 개소의 무선 중계기를 설치하여 사물인터넷 무선통신 서비스망(저전력 원거리 통신) 인프라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미터링(수도 원격검침) △재래시장 화재 감지 △독거노인 활동 감지 △공공화장실 SOS 등 행정서비스와 연계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안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와 버스정보를 연계하여 관내 100개 오지 마을회관에서도 무진장여객의 버스 도착 정보 알리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나혜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대민 행정서비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행정서비스 사업 추진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안산 임로에 국가지점번호판 32점 설치

장수군은 등산객의 안전 확보와 산악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장안산 임로에 국가지점번호판 32점을 설치 완료했다.

9일 장수군에 따르면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기 힘든 산악지역에서 전 국토를 100km부터 10m단위까지 구획해 통일된 번호를 부여한 위치표시체계다.

국가지점번호는 응급상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수행이 용이하도록 위치를 신속히 안내함으로써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된다.

이번에 설치한 국가지점번호판의 경우,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야간에 가시성을 높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등산객들이 조난이나 실족 등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119에 국가지점번호판의 지점번호를 알려주면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빠른 구조가 가능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